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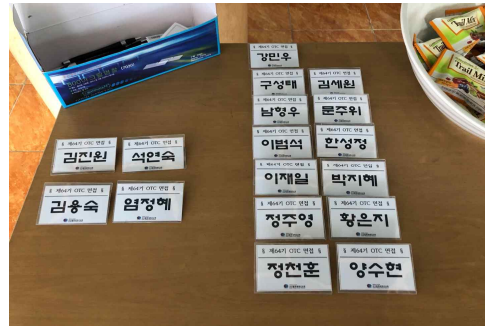
KPM 선교센터에서 보내는 사역 서신입니다.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장의 캘린더를 넘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9년은 본부 사역자로 발령받아 막내 지은이를 인도에 홀로 남겨두고, 평생기도로 후원해 주시던 최고의 후원자이신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환송하고, 아내가 수술을 받는 일들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와 아낌없는 격려로 함께 해주신 후원교회와 동역자들 덕분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KPM 훈련국장으로 임명받아 선교사 후보생 훈련, 교회의 선교훈련, 선교자원 발굴과 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KPM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고령화와 선교자원의 고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 3월에 시행되는 훈련에 22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지원하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5월까지 3개월의 국내훈련과 해외훈련(2주간)의 책임을 맡아 진행하게 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후보생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도 3개월간 단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선교 훈련 속에 잘 준비되고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지만 기쁨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어린 선교사로 자라 갈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2월19일에는 15명의 선교사를 현장에 파송하는 파송예배가 KPM 센터에서 드려집니다. 훈련국장으로 임명받아 같이 3개월간 함께 땀과 울고 웃으며 훈련을 했던 후보생들이 드디어 현장에 배치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선교사는 후원을 위해 400교회를 발로 뛰며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가슴 한켠이 찢힌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임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S.F.C.와 신대원 그리고 고신대학교 선교학과학생들과 연계하고 연합하여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15년 내에 교단 선교사 50%가 은퇴하는 상황을 예측됩니다. 그래서 다음세대가 준비되어야 이 사역이 중단없이 진행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상황입니다. 저의 업무와 사명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숙제 이기도 하기에 차세대 선교자원 발굴과 동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S.F.C.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하여 섬긴 것을 계기로 1월29일 S.F.C.리더십 컨퍼런스에 선교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모든 S.F.C. 리더들이 강령에 동의하며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다시 한번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쁜 한국의 일상이 아직 낯설고 선교지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 영혼들이 보고 싶고 사역지가 문득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역이기에 묵묵히 남겨진 시간을 잘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흩어져 있는 저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맡겨진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됨이 저희 가정에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명절 마지막 자락에 오정동 선교사 촌을 거닐며 이글을 띄웁니다.

2020년 1월27일  
서근석 이정순 여경 헤민 지은 드림